
제51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2.13.~12.1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19. 12. 13.	시청률	0.002

【총 평】

<최일구의 정말> 제11회 ‘디지털 전환으로 완성하는 정부혁신’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로!’ 아이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어디까지 오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다뤄 흡인력과 주목도를 높인 수작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민원을 신청하고, 저장하고, 전송까지 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흡인력과 설득력을 높인 부분이 탁월했다.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하기, 전자증명서 확대,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맞춘 시의성도 적절했다. 디지털 정부의 달라지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정책알림이와 함께 산업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까지 살펴본 구성이 돋보였다.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이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1위,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 1위를 차지해 개도국이 벤치마킹하는 ‘행정한류’임을 소개해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했다.

【구성 및 내용】

‘디지털 전환으로 완성하는 정부혁신’은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로!’, ‘디지털 정부, 달라지는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 정부,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디지털 정부, 산업 발전과 함께 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달라지는 대국민 서비스로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의 비전을 제시한 기획이 수용자들에게 호감을 줬다.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하기, 전자증명서 확대,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맞춘 시의성도 적절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정부의 달라지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정책알림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 자격있는 국민에 고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서비스, 임신 출산 돌봄 패키지 서비스 등 구체적 사례로 흡인력과 설득력을 높였다.

디지털 서비스의 순기능으로 인한 효과와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효과까지 살펴본 구성이 돋보였는데, 모바일 고지서 발급으로 한 해 2억5천만장의 종이 고지서 비용 절감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로 신기술 산업 마중물 효과 등이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와 접근에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 보완대책을 언급한 부분은 정책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했다.

【참고사항】

24:45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변화는?’라는 자막표기는 국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의미전달이 조금 애매했다. 자막을 준비할 때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직관적인 표현을 써주면 좋겠다.

프로그램	KTV 아트시네마		
방송일자	2019. 12. 14.	시청률	0.025

【총 평】

첫 방송된 <아트시네마>는 독립예술영화를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기획의도라고 생각하는데 합목적적이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송구성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줬고 제작진의 의욕 역시 느낄 수 있어 앞으로가 기대된다. <아트시네마>는 독특하고 다양한 소재의 독립예술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나운서 최송현씨 진행으로 'Today 다양성 영화 소개', '씨네마톡(Talk)', '캐릭터 탐구', '영화읽기'로 구성하였다. 특히, 씨네마톡(Talk)은 독립예술영화라 하면 어렵고 복잡하며 어설피다 라는 편견을 깨게 한 코너로 감독이 관객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의도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영화읽기'는 감독이 직접 시청자에게 들려주는 제작후기와 더불어 감상의 포인트를 전하는 컨셉으로 특색 있고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구성 및 내용】

<아트시네마>는 독립예술영화 '숨'에서 '동백꽃이 필 때면'까지 모두 5편의 단편을 다양한 포맷으로 소개했다.

■ Today 다양성 영화 소개

소재나 표현기법이 독특한 작법을 소개하는 코너로 숨막히는 경쟁사회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숨'과 가수 김시스터즈를 통해 돌아보는 음악 다큐멘터리 '다방의 푸른 꿈' 등 두 편을 소개했다

■ 씨네마톡(Talk)

영화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으로 '감독님, 연출하지 마세요'를 연출한 이대영감독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대영 감독은 "감독에게 불만을 가진 배우가 던지는 말을 중심으로 저예산, 시간부족 등 촬영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한 영화'라고 소개했다. 또한 "시스템적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캐릭터 탐구

영화를 감상하기 전 등장인물부터 만나보는 시간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초보엄마 성장기 영화 '소꿉놀이'의 캐릭터를 소개했다. 주인공 김수빈은 갑작스러운 임신과 결혼, 출산으로 엄마, 아내, 며느리, 학생, 가장의 역할을 소화했다.

■ 영화읽기

감독이 관객에게 전하는 영화감상 포인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영화 '동백꽃이 피면' 심혜정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백꽃이 피면'은 붉은 빛깔의 흐름으로 구성된 영화로 붉음의 변화는 현재상태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여는 행동은 외부세계와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19. 12. 14.	시청률	0.009

【총 평】

KTV기자와 함께 우리동네 불편한 점의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우리동네 개선문> 제11회 방송에서는 ‘마을 한가운데 군 비행장이 46년 만에 주민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와 ‘우리동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주민자치회’ 성공 사례 등 2편이 다뤄졌다.

특히, 관련기관의 협의와 소통이 주민 숙원을 해결해준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주민 스스로 뜻을 모아 마을 발전을 이뤄나가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사례를 제시한 기획이 돋보였다. 지역발전의 장애였던 진부비행장의 경우 권익위가 나서 육군36사단과 평창군의 대화로 비행장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활로를 찾게 된 사례가 소개됨에 따라 해당기관의 소통과 조율이 솔루션을 찾게 된 순기능이 강조됐다.

동네 주민이 주인이 돼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대전광역시 덕암동과 송촌동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뜻을 모아 마을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구성 및 내용】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과정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이템과 주민자치회 성공적 운영 사례 등 2가지 아이템이 다뤘는데, 문제점 → 핵심 이슈의 논의 전개과정 → 갈등의 해결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포맷이 설득력을 높였다.

■ 마을 한가운데 軍 비행장...46년 만에 주민 품으로

강원도 평창의 진부비행장은 1973년에 군사적 목적으로 확보해 둔 비행장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마을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이를 조정하고 폐쇄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나서서 조정한 사례로 조정회의의 실제 영상이 그대로 준비가 되어 좀 더 현장감을 높였고 이 자리에서 군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볼 수 있어 소통의 이미지도 한층 부각되었다.

또한, 아직 남아 있는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의 이전 문제를 따로 다루고 마을의 지리적인 위치를 언급하며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고 전국의 다른 비행장 폐쇄 소식도 함께 전해 완성도를 높였다.

■ 우리동네 주민이 주인공 되는 주민자치회

대전광역시 3개동의 주민자치회를 소개하고 이들의 역할과 성과 위주로 소개를 해서 지자체의 소통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 주민자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는데 통학로 안전캠페인부터 주차규제봉 설치, 쓰레기 안내 표지판 부착, 마을 경관 개선 등 소소한 역할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안들을 해결해온 점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19. 12. 15.	시청률	0.011

【총 평】

〈PD 리포트 이슈 본〉 제278회 방송은 “안전한 스쿨존, 꼭 만들어 주세요.”편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역 내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뤘다. 지난 12월 1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안전 스쿨존의 문제점과 실태를 꼼꼼하게 취재하여 시청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 방송이었다.

그리고 취재 방향을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잡은 것은 지난 10일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초등학교의 협업으로 빛난 대전 도마초등학교 사례는 제2의 어린이 피해를 막기 위한 어른들의 역할이 잘 드러난 부분이었고, 안전한 스쿨존이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지난 9월 김민식군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일명 ‘민식이법’ 등으로 촉발된 안전한 스쿨존 조성 및 스쿨존 내 운전자의 안전의식제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도입부에 민식이의 집을 찾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남겨진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사고의 참담함과 그 후유증을 전했는데,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제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스쿨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결해야할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 토포인트 방식으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취재해 그 심각성을 피부에 와 닿게 했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의 효과가 좋다는 전제를 하며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함께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었다. ‘제한속도 30Km’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현장 취재로 고발하고 속도에 따라 상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영상과 비교 자막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줘 경각심을 높였다. 여러 가지 안전표식이 눈에 잘 띄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왜 과속방지턱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등 ‘신호등 설치’의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사례를 대구와 대전의 사례를 통해 소개했는데 소구력이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도 자극을 줄만한 내용을 담아냈다고 생각한다.

클로징 부분에 ‘민식이법’ 통과 의미 상기시키고 정치인들의 협상 카드로 악용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고 있는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 유진이법 등의 핵심을 짧게 잘 요약하여 이러한 법안들이 왜 국회통과를 해야 하는 지, 국민들의 관심이 왜 필요한지를 절박하게 잘 담아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9. 12. 15.	시청률	0.033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제11회에서는 귀촌 11년차인 70대 노부부가 3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진 연화주(설연주)를 만들고 딸에게 전수하는 전통지킴이 사례가 감동적으로 다뤄졌다.

전통주 껍우선명인은 300년 전 9대조 시조모가 술 만드는 비법을 기록한 책 ‘주방문’을 가보로 간직하며 그 비법을 딸에게 전수하고 있는 모습이 다뤄져 감동을 더했다.

특히, 연꽃 향기 가득한 연화주를 만드는 전통주 제조과정이 소개돼 흡인력을 높였고 가족이 모여 연잎밥을 만들어 먹으며 담소하는 모습에서 귀촌의 여유를 느끼게 했다.

전통주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전달하고 옛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깊이감 있게 담아냈다. 또, “전통을 말할하면 역사를 말할하는 것”이라는 전통주 장인의 메시지가 진한 여운으로 남았다.

【구성 및 내용】

오늘 주인공은 경북 칠곡군에서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는 귀촌 11년차의 부부였는데 아무래도 전통주 명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어 소개한 점이 기존의 다른 편들과 차별화가 되었다. 특히, 전통주 장인이 연화주 제조과정을 그대로 보여줘 다큐의 가치를 살린 부분이 좋았다.

발효 누룩에다 지에밥을 넣어 만든 밑술을 식히고 누룩을 버무려 100일 간 발효, 숙성시키는 과정이 리얼하게 묘사됐다. 경북 칠곡의 왜관전통시장의 정겨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내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는 역할을 했다.

연화주의 덧술을 담는 장면에서 클로징을 했는데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발효가 되는 술의 특징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 내레이션도 좋았고 전통주를 지켜오는 명인들을 언급하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마무리를 한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 전통주 이야기

전통주 명인 부부가 어떻게 술을 접하게 되었으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주의 맥을 잇게 된 배경이 소개되었고 직접 술을 담는 과정도 꽤 상세히 소개가 됐다.

■ 시장 나들이 및 연잎밥 준비

아들 내외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시장에서 찬거리를 마련하고 부부만의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소개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연잎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공개되었다.

■ 명인의 뒤를 이은 큰 딸과 전통주 제조

부부의 뒤를 이어 큰 딸이 명인 타이틀을 이어받았다는 소개와 함께 엄마와 딸이 함께 전통주를 빚으며 명인을 이어주게 된 심경과 이어받은 심경 등을 언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프로그램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19. 12. 16.	시청률	0.000

【총 평】

지난 11월 28일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학종 금수저 전형 비판하던 언론이?'라는 부제로 팩트 체크를 통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학종에 대해 비판했던 언론이 최근 교육부의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후 또다시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 전체 틀 속에서 '공정성 강화'를 살피지 않고 부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 등 대입공정성과 관련된 주제로 한정하여 방송을 풀어가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된 것 같다.

【구성 및 내용】

■ 팩트체크 포인트 1: 모든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 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 학교 자율활동, 정규동아리, 교내 봉사활동, 다양한 진로 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포함 비교과 영역은 여전히 반영된다. 비교과 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과 개인활동 등이 있는데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반영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런 변화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학교 밖 비교과활동, 교사 추천서 등이 폐지되면서 학종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활동이 위축될 우려는 있다.

■ 팩트체크 포인트 2: 비교과 반영이 축소되면서 입시제도가 과거로 회귀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내용을 교사가 모두 관찰하고 기록하여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학생들을 판단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 즉 단순히 점수로만 가르던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

■ 팩트체크 포인트 3-1: 교과세특 기재 의무화로 교사 부담 가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의무화하여 교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비교과 과정이 축소되면 교사의 부담이 약간 저감될 예정이다. 이미 국 영 수 중요과목의 교과세특 기재율은 전국 평균 70% 이상이다.

■ 팩트체크 포인트 3-2: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

그 동안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교과세특이 선별적으로 작성되면서 불공정하게 선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세특을 기재한다는 것은 학생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 팩트체크 포인트 3-3: 교과세특 기재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현장의 기재 격차 문제 해결방안은 결국 교원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다. 이에 교과세특 표준안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실습중심 교원 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19. 12. 17.	시청률	0.097

【총 평】

오늘 방송된 KTV 대한뉴스는 국정목표인 국민안전과 국민생명보호 아이템을 중심으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행보, 육아휴직, 부동산 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시각을 확대해서 전했다.

오늘 주요뉴스는 문 대통령, 차기 총리에 정세균 전 의장 지명, 정세균 후보자 "경제살리기·국민통합 주력, 직장인과 깜짝 점심식사..."국민과 소통",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집중 인상, 문 대통령 "국민 안전, 현 정부 국정목표", AI 강국 만든다..."삶의 질 OECD 10위로" 등이었다. 이와 함께 <S&News> 기부를 거부한다?, <뉴스링크> 무역 1조 달러, <유용화의 오늘의 눈> 정세균 총리 지명, <오늘의 브리핑> 문 대통령 "국민 안전, 현 정부 국정목표" 등을 방송했다.

【구성 및 내용】

오늘 주요뉴스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대통령 직원 식당 방문,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 등을 차례로 전했다. 문 대통령, 차기 총리에 정세균 전 의장 지명, 정세균 후보자 "경제살리기·국민통합 주력"에서는 대통령의 입장과 정세균 후보자의 입장을 각각 전했다. 두 리포트 동일하게 입법부 출신의 후보자라는 점과 경제분야에서 역할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직장인과 깜짝 점심식사...'국민과 소통'은 서울구로디지털단지 구내식당에서 직장인과 함께 깜짝 점심식사를 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취재했는데, 주52시간제 이후 하도급업체의 납기일 마감을 위해 연장근로 시간 안내 관련한 부분과 워킹맘의 육아 애로 사항 등을 듣는 부분이 전해졌다.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의 소통이라 정책 시행에 대한 현장의 피드백을 청취하는데 좋은 시간이었다.

<S&News>에서 모발 기증 단체의 거부 소식을 전했는데 정보성도 있었고 공지 효과도 있었던 것 같다. 기증된 모발의 상태 때문에 기증 단체에서 부득이하게 기부를 거부한다는 입장도 조심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고

<뉴스 링크>에서 다룬 '무역 1조 달러', '메기효과', '내비의 경고'는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아이템으로, 아이템 선정이 돋보였다. 특히 무역 1조 달러가 주는 의미와 우리의 입지 및 영향력 설명은 구체성을 띄어 메시지 전달 효과가 높았다. 그리고 내비의 경고는 상습적인 결빙 도로와 취약도로를 음성과 경고 안내로 시범 실시한다는 생활 정보와 안전 정책을 전달했는데 시의성 있는 아이템이었고 핵심만을 잘 뽑아 전달했다.

<오늘의 브리핑>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반영의 국정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강조의 강조를 하는 문대통령의 국무회의 모습처럼 안전불감증에 의해 대형사고가 일어나질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속적인 캠페인도 이어졌으면 한다.